

한가지 행복

과학적 마인드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글_ 박기영 순천대 자연과학대 기초과학부 교수 plpm@sunchon.ac.kr

나는 가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해하는 가도 스스로 분석해본다.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자신 있게 언제 해 보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본다.

이에 대한 답은 항상 명료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최대한 몰두할 수 있으며 몰두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한 가지는 그런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한 가지 행복은 잘 찾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직업이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었던 때는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공부에만 몰두해 있었을 때였다. 우리 실험실을 방문한 미국 아카데미 회원인 노교수님께서 나와 토론했다가 갑자기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행복하다고 대답했던 그 때의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가슴속에 남아 있다.

지금도 밤 늦게까지 전공 논문을 읽으면서 깊게 생각에 잠기다가 연구실을 나설 때면 행복하고 인생이 보람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

과학을 공부하는 길이 늘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경우 실험에 매번 실패하고 난 다음 깊은 좌절을 겪으면서 꿈 속에서도 고통을 겪는 때가 많이 있다.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겪었으면 벤젠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겠는가. 나도 실험이 잘 안되는 경우 꿈 속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험할 때도 어렵지만 논문

을 쓰는 과정은 더욱 어렵다. “정말 피를 말린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많다. 논문 쓰기에 몰두하다가 밤잠을 설치는 때에는 마치 컴퓨터를 끄지 않은 것처럼 머릿속이 꺼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고통스러움이 많은 과학을 공부하는 길을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 스스로 생각해본다. 그 이유는 한가지인 것 같다. 과학의 순수성, 진실성, 경제성, 합리성 그리고 그 체계에 매료되기 때문일 것 같다.

나는 과학의 그러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상하지 못한 실험결과가 나오면 실험을 잘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경우일 것이다.

나는 전공에 몰두하면서도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부와 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해 왔다. 그 때마다 과학을 공부한 것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초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인위적인 통치행위가 일부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이 낮아 국가개조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매료시킨 과학의 특성과 과학기술적 마인드가 좀 더 우리 사회에 많이 접목될 수 있다면 국가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성장 동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ST**



글쓴이는 연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97년 미국 퍼듀대 원예학과 객원교수,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석간사